



조선/기계 김 현

02. 6098-6699 / hyun.kim@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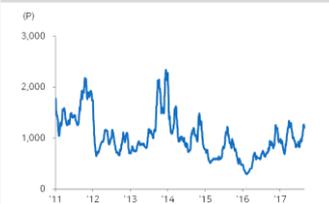
국내 주요 조선/기계 업체 Valuation

업체명	시가총액 (십억원)	외국인지분율 (%)	증가 (원)	1D (%)	1M (%)	3M (%)	YTD (%)	PER(x)		PBR(x)		ROE (%)	
								17E	18E	17E	18E	17E	18E
현대중공업	8,414.8	17.4	148,500	0.0	-14.9	-14.2	7.3	53.5	120.9	0.8	0.8	1.3	0.6
현대로보틱스	7,215.0	19.1	443,000	0.5	0.6	8.6	NA	4.9	5.5	0.9	0.8	19.4	15.8
현대일렉트릭	1,007.3	6.2	271,500	-1.3	-16.2	-7.3	NA	13.3	9.0	1.3	1.1	9.5	13.1
현대건설기계	1,202.4	9.0	335,500	-3.0	-8.5	11.1	NA	10.4	8.0	1.4	1.2	13.1	15.8
삼성중공업	4,173.0	19.2	10,700	-2.3	-4.5	-13.0	15.7	54.3	115.8	0.7	0.7	1.2	0.6
대우조선해양	N/A	2.4	N/A	N/A	N/A	N/A	N/A	N/A	N/A	N/A	N/A	17.6	9.1
현대미포조선	2,020.0	13.2	101,000	-3.3	-6.0	-0.5	50.3	9.9	34.2	0.8	0.8	8.9	2.4
한진중공업	498.4	5.4	4,700	-2.2	6.0	10.7	39.7	-14.6	10.6	0.6	0.5	-3.8	5.1
현대엘리베이터	1,280.9	28.6	52,000	-0.2	-3.2	-16.7	-9.4	9.7	9.2	1.4	1.3	15.9	14.6
두산발켓	3,824.5	24.3	38,150	5.5	7.8	2.3	6.4	16.7	15.3	1.1	1.0	6.6	6.7
현대로템	1,572.5	27.9	18,500	2.5	-1.3	-15.5	1.9	35.1	23.7	1.1	1.1	3.2	4.6
하이록코리아	298.8	46.6	21,950	1.9	-4.8	-8.4	4.0	11.5	10.1	0.9	0.9	8.5	9.0
성광벤드	282.0	13.8	9,860	-1.4	-0.4	-9.1	11.3	31.9	18.4	0.6	0.6	1.9	3.2
태광	260.5	16.9	9,830	0.3	2.3	5.8	18.6	36.8	20.3	0.6	0.6	1.6	2.9
두산중공업	1,916.3	10.2	18,000	0.0	-12.6	-21.1	-33.8	22.7	10.5	0.6	0.6	3.2	5.8
두산인프라코어	1,736.4	10.6	8,370	2.8	3.8	5.0	-5.1	9.9	8.1	0.9	0.8	8.5	9.9
두산엔진	291.2	4.8	4,190	-1.2	1.6	5.0	27.5	21.8	20.3	0.5	0.5	2.5	2.6
한국항공우주산업	4,508.2	20.6	46,250	0.7	-10.5	-27.3	-31.0	26.2	17.3	3.0	2.6	11.4	16.1
한화테크윈	2,040.9	21.2	38,800	-0.5	-2.8	-22.3	-10.7	20.7	15.1	0.9	0.8	4.2	5.6
LG넥스원	1,834.8	20.6	83,400	0.1	1.8	1.7	3.6	18.7	18.0	2.5	2.3	15.2	13.6
태웅	397.1	4.1	19,850	1.8	-13.1	-30.1	-11.6	51.3	17.6	N/A	N/A	1.2	3.5
동성화인텍	147.1	3.1	5,450	3.2	-9.3	-20.9	-5.2	-25.3	10.8	1.3	1.2	-5.1	12.0
한국카본	260.2	16.6	5,920	-0.7	-1.3	-10.7	-2.1	19.9	26.8	0.8	0.8	4.1	3.0

주: 커버리지 업체 PER/PBR/ROE는 메리츠증권권 추정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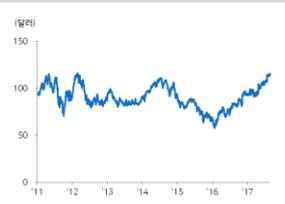
주요 지표 및 차트

Baltic Dry Index(BDI) : **+3** 1184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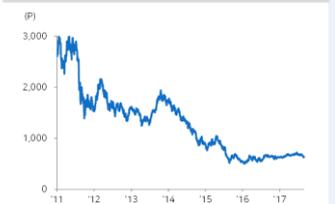
Caterpillar(CommonStock): **-0.06** 117.49



중국 내수 후판 가격 (CDSPPSPAV Index)



KRX 조선업 지수(KRX Shipbuilding Index)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현대상선, 대우조선에 VLCC 5척 발주 확정

현대상선은 대우조선해양에 발주키로 했던 VLCC 5척 신조 선박투자를 확정함. 5척 발주에 투자하는 금액은 약 4,700억원으로 신조 선박프로그램(선박펀드)를 통해 선박금융을 조달할 계획임. 또 한진중공업 필리핀 수빅 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1.1만TEU급 컨테이너선 2척 인수를 결정함. (EBN)

Bahri Dry order ends Hyundai Vinashin bulker drought

베트남의 현대 Vinashin은 4년 만에 Bulk 선 주문을 확보함. 최근 현대미포조선 이 사우디의 Bahri로부터 수주 받은 Dry Bulk 8.1만TEU급 4척의 계약에는 현대 Vinashin에서 건조하는 호항이 포함됨. 해당 선박의 가격은 각각 3천만달러이며, IMO Tier III 배출 기준을 충족함. (TradeWinds)

Maersk threatened with second downgrade

Maersk는 대규모 부채로 다시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이 제기됨. Moody's는 Baa2 발행사 등급과 선순위 무담보 등급을 검토에 포함함. S&P는 Maersk의 신용등급을 이와 비슷하게 낮출 수 있다고 경고함. 신용평가사들은 Maersk가 레버리지 비율을 3.5배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고 언급함. (TradeWinds)

Nakilat sizes up conversion option for LNG ship to FSRU

카타르의 Nakilat은 LNG 운반선용 FSRU로 전환을 노력하고 있다고 알려짐. FSRU로 전환하는 선박은 2007년에 건조된 14.5만CBM급 'Maran Gas Coronis'로 알려짐. Nakilat은 Hoegh LNG와 FSRU 전환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으로 MOU를 체결했고 향후 카타르의 LNG 수출을 도울 계획임. (TradeWinds)

Japan and South Korea yards look toward kamsarmaxes

상반기 중국이 휩쓸었던 Kamsarmax급 선박이 더 많은 주문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며, 한국과 일본도 수주하기 위해 노력함. 중국이 수주한 이유는 NOx Tier II에 맞는 저사양의 선박을 싸게 판매함. 한국과 일본의 선박은 더 높은 기준에 충족할 수 있고, 중국선 시장에서 프리터임을 받아 경쟁력이 있음. (TradeWinds)

"회장님 비자금 의혹?"...DGB, 하이투자증권 인수 암초

하이투자증권의 유력한 인수 후보 DGB금융지주의 박인규 회장이 비자금 의혹에 휘말림. 하이투자증권 인수를 주도해온 박 회장의 혐의 인정 여부가 인수 여부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됨. 인수가는 처음 희망가 4,700억원이었지만 협상이 진행 중임. 업계에서는 4,300억원까지 하락했다고 알려짐. (EBN)

DVB Bank loan losses surge to \$529m

독일 DVB Bank는 컨테이너선과 Offshore의 업황이 둔화되면서 대손충당금이 5.29억달러로 급증함. 작년과 비교했을 때, 이는 534% 증가한 수치임. 회사 관계자는 컨테이너선 부문은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인도, Offshore 부문은 낮은 용선료와 치열한 경쟁으로 업황을 부정적으로 생각함. (TradeWinds)

Yangzijiang plans \$150m fund raiser

중국 Yangzijiang Shipbuilding은 신규 자금을 모집해 사업 확장 및 운전자본 조달을 계획함. 사모 방식으로 1.37억주를 매각해 약 1.53억달러를 조성할 계획임. Yangzijiang은 올해 Dry bulk 업황 개선에 따른 신조 발주로 증가가 80% 이상 상승함. 추가 급등에 대해 Nomura는 경고함. (TradeWinds)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7년 9월 1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권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7년 9월 1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7년 9월 1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현)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